

대행 스님

영원한 생명의 근본, 불성 그 자체만이 자기의 선장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자기를 희생하며 참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저의 친한 친구도 죽고 못 살겠다고 우겨서 결혼하더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면서 긴 병 수발에 마음도 차츰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답변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을 더 잘 알고, 자기가 넘어지면 자기 손이 제일 먼저 가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무리 자식 부모지간이라도 자기 아픈 거는 상대방이 진짜 다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두 달이지 만약에 일 년만 넘어가 보세요. 불쌍하긴 불쌍하다고 하나 그건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 누구도 믿을 게 없어요, 나밖에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밖엔 없습니다. 나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변소엘 가도 같이, 언제나 같이해 주는 그 영원한 사랑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사랑? 참, 무슨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 그렇게 그런 사랑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요. 잠시 잠깐 사랑한다고?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사랑이냐 이겁니다, 싫으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러는 게.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래도 자기한테 이익해야만이 택하지 해롭게만 돌아온다면 그건 택하지 않죠. 사랑하다가도 자기한테 앞으로 장래에 해로울 일이라면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일 년만 만약에 앓고 드러누웠어도 사랑은 멎어지죠. 따로,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몹쓸 병이 들었을 땐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은 그러지마는 속으론 그렇질 않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하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본래 죽고 사는 게 없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둘로 듣겠지마는 말을 하려니까 둘로 하는 겁니다. 왜? 그 부동한 자세의 능력으로써 바로 그 모든 거를 활용하고 움죽거리게 되니까 그게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삶을 보람 있게 살면서 이 육이 무너진대도 불과 법이 둘이 아니기에, 항상 나 아님이 없이 즐겁게 산다는 얘깁니다. 어느 것도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항상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구도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도,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걸 자식이 또 들으면 섭섭할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자식도 일 년 이태만,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또 부모가 이태 삼 년만 드러누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서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주는 게 효자고 효녀고, 그런 것뿐이죠. 빨리 죽어 주는 게 자식한테 바로 덜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이것이 소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일체 만물, 물질적이라는 것은 다 변질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못 된다는 얘기죠,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자기가 속아요? 아니, 천신만신 저거 해서 시중하고 뭐 하고 또 남자는 남자대로 벌어다가 들입다 주고 이러고선 배신을 당하고. 그래 내쫓기지는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떠났으면 벌써 배신당하는 거지 뭐, 별수 있나요? 몸뚱이만 있으면 뭘 합니까? 누구든지 살면서 배신을 수차 당하면서 다시 또 붙어 돌아가고 또 배신을 당하면서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럭하면서 살죠. 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보다 나는 욕심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쪼금 사랑하다가 그렇게 치울 거라면 차라리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나와도 조금 살다가 그냥 변질되고 없어질 물건이라면 차라리 물건으로 나오질 않겠다 이겁니다. 물건으로 나오더라도 아주 변함도 없고 남한테 모든 것을 이익을 줄 수 있고 눈요기도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 그런데 그거조차도 의욕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 주기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차라리 그저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여러분이 사는 대로 좇아서 그냥 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떤 땐 재미도 있어요.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야리야리한 사랑이나 그런 거, 고것을 갖다가 천 년이라고만 생각하면 편안하겠죠. 24시간 동안에 한번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그, 한 시간 편안하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24시간 동안. 고정되게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시간씩 참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이 왕자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 한 시간이 싸움으로 변할지도 모르죠, 사랑은커녕.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려면 나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가발전소에서 모든 거를 불을 켜서 방 안을 다 밝게 하면 눈이 컴컴하질 않아서 "여보! 여기 있으니 잡수우." 이럴 수도 있고, "얘! 여기 있으니 먹을 거 먹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마는 방이 캄캄하면, 내가 불을 안 켜면 캄캄한 거죠. 방통이 다 캄캄한데, 전부 눈이 캄캄한데 뭐를 봐서 사랑이고 나발이고 있겠어요? 나는 부처님처럼, 참, 위대한 큰스님들처럼 말을 못 해서 이렇게 마구 하지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구 해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아이, 세상에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구, 세상에, 사랑들 한다고 그래 봤자 내가 보는 바에는, 기껏 그냥 털고 닦고 그냥 해 먹이고 해 주고 빨아 입히고 이래도, 그리고 또 남자들은 기껏 벌어다가 그 고생을 하고 손발을 널리고 이렇게 해서 벌어다 줬는데 말이죠, 여자가 씀씀이를 어떻게 고렇게 고렇게 쓸 때에 '아이구! 정말이지 이거는 너무하는군. 너무하는군, 모두.' 이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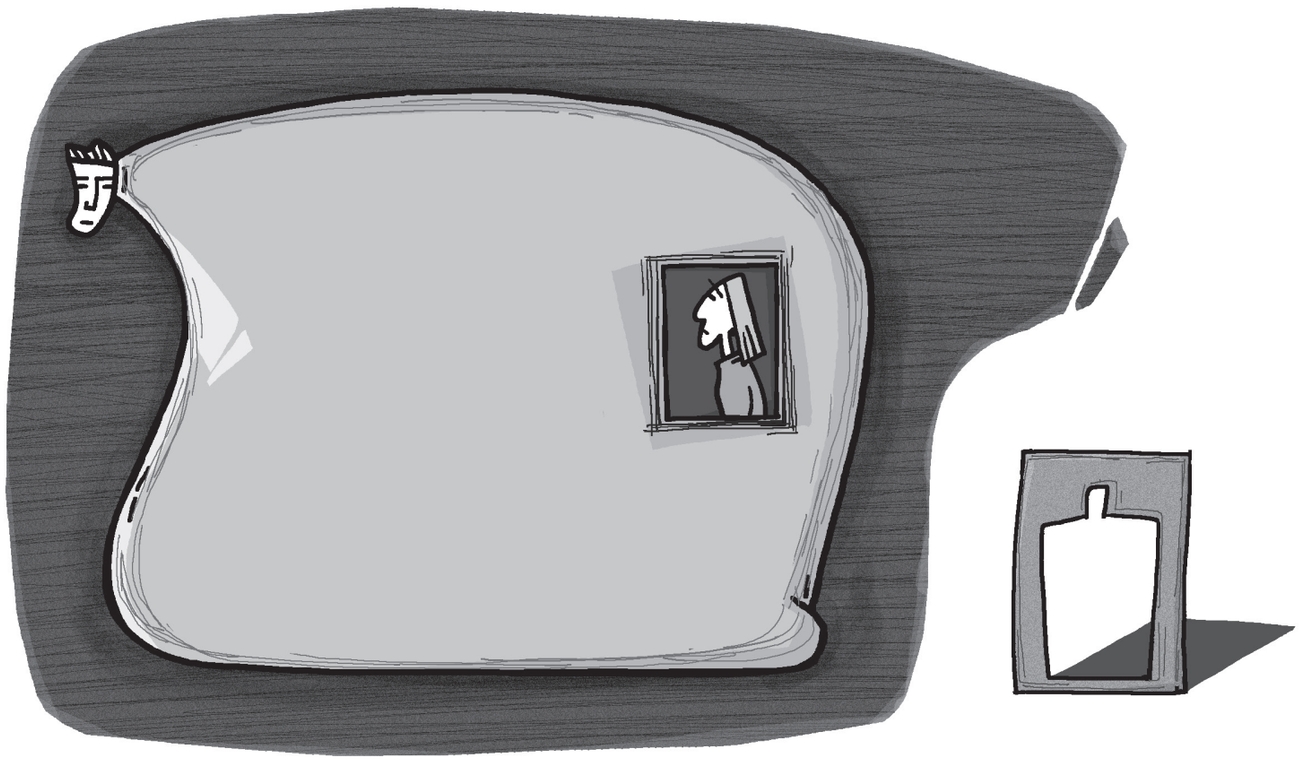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